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김 유 미¹⁾

권 윤 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성숙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 및 부모자녀 관계요인이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종단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생 2,883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고등학교 시기에 점차 증가하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급등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더 높고, 변화율은 전문계 학생들에게서 더 높았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낮은 실태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된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계열에 관계없이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가 높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계나 조망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지각하는 질적 측면은 고등학교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 측면, 전문계 고등학생에게는 부모자녀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진로지도 및 상담 시 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학교계열에 따라 살펴보았고, 전통적인 구조적 변인인 개인 요인 외에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측면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차이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진로성숙도, 학교계열, 부모자녀관계 요인, 개인 요인, 다층모형

* 이 연구는 2014년 추계 인간발달학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mail: yjkwon98@hanmail.net)

I. 서론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증가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특히 진로결정을 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은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이다(임언, 정윤경, 2001). 즉, 진로성숙도란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자신의 진로 선택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김정원, 김옥인, 2007). 진로를 일찍 결정한 청소년들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의사결정, 자기효능감 등 진로관련 역량,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의 안녕감과 학업성취 및 고용경험과 같은 사회적 성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Creed, Prideaux, & Patton, 2005). 이처럼 진로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 발달 및 삶의 질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에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학업성취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지며(김정원,

김옥인, 2007; 이주리, 2008; 황매향, 임은미, 2004), 정의적 특성인 자아개념보다 인지적 특성인 학업성취가 더 큰 관계가 있다(김정원, 김옥인, 2007)는 결과를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진로성숙도를 남녀별로 비교한 연구결과를 볼 때 대체적으로 여자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가 다소 많으나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안선영, 장원섭, 2009). 따라서 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 학교, 또래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고등학생 청소년에게도 여전히 부모가 가장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정윤경, 2005) 진로성숙도 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부모의 연령, 직업, 고용상태 등 구조적 변인이 주로 언급되어왔다. 그런데 개인이 속하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같은 귀속적 특성에 의한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개인의 진로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안선영, 장원섭, 2009). 청소년기에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동반된 진로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부모 지지와 의사소통은 이러한 결정을 더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지원,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 자녀 관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신희경, 김우영, 2005; 이정규, 2006; 허정철 2008).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요인이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 경로는 크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접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경우와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으로 이행하는 경우로 구분된다(오정란, 1998).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계열은 전문계와 일반계로 구분되며 전문계 고교는 직업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일반계 고교는 주로 대학진학 준비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강한 차이점이 있다(안선영, 장원섭, 2009). 또한 학교 계열에 따라 진로지도 및 진로 관련 수업이 상이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와 결정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신희경, 김우영, 2005). 그러므로 학교 계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계열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부모의 기대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이현철, 김경식, 2012). 그러므로 학교 계열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질,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성, 경제수준과 같은 개인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측면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학교계열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성숙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문헌연구를 통한 결과이거나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한 종단연구 결과가 아닌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각기 다른 연령을 표집하여 한 연령과 다른 연령을 비교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종단 자료를 활용한 발달궤적의 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계와 전문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변화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태도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조사 설계들은 횡단적 조사 설계로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 설정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 또는 어떤 사건의 시간적인 변화의 유형이나 추세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박창남, 김희진, 김선업, 2001).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는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사회화과정 중에 있는 과정적 존재로서의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의 태도나 행위의 여러 측면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료가 수집되었다(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이러한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의 발달과 관련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려는 연구

목적과 부합되어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 2패널 중 3차, 4차, 5차년도 3년간 종단자료를 토대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까지의 진로성숙도의 발달궤적을 규명하고자 한다.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모형을 가정한다. 성장모형에서는 질적인 변수로 다루어왔던 시간을 양적인 변수로 다루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종단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성장모형을 가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체 내 성장을 모형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학교계열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고, 그리고 진로성숙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을 성, 학업성취, 경제수준과 같은 개인 요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요인으로 구성해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개인요인, 부모자녀관계 요인은 학교 계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개인요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진로성숙도 초기치 및 변화율에 주는 영향은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의 두 개의 연령 코호트를 선택하여 각각의 모집단을 서울시, 6개 광역시, 시군구의 지역별별 인구비율에 맞게 층화한 후에 모집단 비율에 맞게 집락 단위의 확률표집으로 학교를 산정한 뒤 한 학교에 1개 학급이 들어가도록 무선 표집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이경상 외, 2004).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기준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5년간 동일표본으로 반복추적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두 개의 연령 코호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연령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소년 패널의 중 2패널 3차, 4차,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본 분석에서 다루고자 하는 독립변수들에 모두 응답했고, 3차년도 당시 일반계 혹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원은 고 1(3차년도)을 기준으로 총 2,883명이었으며, 남자 1,453명 여자 1,430명, 일반계 2,183명, 전문계 700명이다.

2. 측정도구

진로성숙도

이 연구에서는 1수준에 투입될 종속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선정하였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패널 조사의 3차, 4차, 5차년도 조사에

표 1. 진로성숙도 관련 문항

문항번호	문항내용
1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2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3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4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5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6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7	나는 현재, 나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모두 포함된 진로성숙도 관련 문항을 표 1과 같이 선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결과 해석이 용이하도록 응답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 역시 높아짐을 의미하도록 했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로는 독립변수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독립변수를 초기값으로 고정하여 시간독립적 변수로 사용하여 선행모형 실시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2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들의 시간독립적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개인요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 변수의 시점별 상관관계, 분산, 평균값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도별 각 변수들은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각 변수들의 시간독립성을 전제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초기치를 대푯값으로 설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개인요인. 이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서는 성별, 학업성취,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청소년패널 설문조사 첫 페이지에 응답자의 성별을 물어보는 문항을 사용했으며, 학업성취 변인은 응답자의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의 지난학기 성적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문항을 사용했다. 학업성취에 관한 문항은 표 2와 같다. 학업성취 변인은 다섯 가지 과목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가구용 질문지 중 월평균 소득을 물어보는 문항(○○님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서 월평균 소득이란 ○○님 댁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

표 2. 학업성취 관련 문항

과목별 반성적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국어	1	2	3	4	5
영어	1	2	3	4	5
수학	1	2	3	4	5
사회영역	1	2	3	4	5
과학영역	1	2	3	4	5

득, 연금 등 1년간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을 이용했다. 고등학생의 가구 소득을 물어보는 이 문항의 측정 단위는 만원이나, 통계분석 시 이 변수가 갖게 될 계수의 크기와 해석상의 의미를 감안하여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최종 변수를 만들었다.

부모자녀 관계요인. 진로성숙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요인으로서는 청소년패널 조사의 부모영향 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홍세희, 김지연(2006)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외출감독,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학대로 관련문항을 범주화하였다. 각 범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애정과 이해는 부모님과 자녀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는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나타낸다. 부모와의 대화는 부모와 자녀가 친근하게 이야기하는지,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부모와 얼마나 대화하는지, 대화의 빈도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나타낸다. 부모간의 불화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얼마나 욕설이나 구

타를 하는지를 나타낸다. 부모의 학대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심하게 맞은 적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청소년 패널 데이터에서 부모자녀 관계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문항은 표 3과 같다. 부모자녀관계 요인에 대한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제시된 14문항을 선행연구(홍세희, 김지연, 2006)에 근거하여 5가지 변인으로 묶은 후, 각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분석에 포함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각 변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즉, 각 범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과 이해도가 높으며, 부모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부모가 자녀의 외출에 대해 관심이 많고 부모간의 불화가 심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 및 구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을 활용

표 3. 부모자녀 관계요인 관련 문항

변인	문항내용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와의 대화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의 외출감독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부모간의 불화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부모의 학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하였다. 다층모형은 흔히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고도 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한 구조가 있는 자료의 분석에 활용된다(Raudenbush & Bryk, 2002). 이 모형은 결측치(missing data)가 있거나 각 개인 별로 측정 시점이 여러 차례인 종단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층모형을 통해 변화패턴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낼 수 있으며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면 그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무엇인지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홍세희, 2015).

이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의 평균값이 변화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측정 변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무변화 모형보다는 선형모형을 택하였다(김동준, 2012). 종단자료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은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1수준 모형과 개인차를 설명하는 2수준 모형으로 구성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한 후 무선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한다(Singer,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번째 무조건부 모형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무조건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인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을 추가하였다. 연

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1단계 무조건부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text{수준: } Y_{it} = \pi_{0i} + \pi_{1i}(\text{WAVE}) + \epsilon_i, \epsilon_i \sim N(0, \sigma^2) \\
 &2\text{수준: } \pi_{0i} = \beta_0 + \beta_{11}(\text{성별}) + \beta_{12}(\text{학업성취도}) + \beta_{13} \\
 &\quad (\text{경제수준}) + \beta_{14}(\text{부모의 애정과 이해}) + \beta_{15}(\text{부모와의 대화}) + \beta_{16} \\
 &\quad (\text{부모의 외출감독}) + \beta_{17}(\text{부모간의 불화}) + \beta_{18}(\text{부모의 학대}) + \eta_i, \\
 &\pi_{1i} = \beta_0 + \beta_{11}(\text{성별}) + \beta_{12}(\text{학업성취도}) + \beta_{13}(\text{경제수준}) \\
 &\quad + \beta_{14}(\text{부모의 애정과 이해}) + \beta_{15}(\text{부모와의 대화}) + \beta_{16}(\text{부모의 외출} \\
 &\quad \text{감독}) + \beta_{17}(\text{부모간의 불화}) + \beta_{18}(\text{부모의 학대}) + \eta_i,
 \end{aligned}$$

여기서 Y_{it} 는 개인 i 의 시점 t 에서의 측정치를 나타낸다. 또 (WAVE)는 측정시점에 따른 시간 코딩값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π_{0i} 를 초기치의 의미로 해석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학년을 기준으로 중심화 정리(centering)하여 0, 1, 2 값으로 시간 코딩값을 입력하였다. 따라서 1수준 식에서 초기시점이 0이라면, π_{0i} 는 개인의 초기치를 나타내고, π_{1i} 는 변화율이다. ϵ_i 는 시점 t 에서 개인 i 에 대한 오차이다.

2수준 모형은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개인 간 초기치와 변화율의 차이를 나타낸다. 2수준의 β_0 와 β_0 는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전체 평균을 나타낸다. η_0 와 η_1 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 i 의 무선효과를 나타낸다. 이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분산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τ_{00} 와 τ_{11} 은 각각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다. τ_{01} 과 τ_{10} 는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T = \begin{bmatrix} \tau_{00} & \tau_{01} \\ \tau_{10} & \tau_{11} \end{bmatrix}$$

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SAS를 이용해서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HLM 6.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이상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계열 별 개인 및 부모자녀 관계 요인의 전반적 경향 및 차이

주요 변인들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반계 진로성숙도 점수는 1학년 25.74점, 2학년 25.86점, 3학년 26.89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승하였다. 전문계 고등학생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1학년 24.67점, 2학년 24.62점, 3학년 26.32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높아져, 진로에 대한 태도가 성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점수 변화 경향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계와 전문계 모두에서 학년 별 점수의 차이가 1, 2학년 때는 비교적 크지 않다가 3학년이 되면서 전 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계열별 진로성숙도

표 4. 학교 계열별 진로성숙도, 개인 및 부모자녀 관계 요인의 경향 및 차이검증

항목	일반계 고등학생 <i>M(SD)</i>	전문계 고등학생 <i>M(SD)</i>	<i>t</i>
진로성숙도(3차)	25.74(4.82)	24.67(5.25)	4.79 ^{***}
진로성숙도(4차)	25.86(4.89)	24.62(5.37)	5.30 ^{***}
진로성숙도(5차)	26.89(5.13)	26.32(5.19)	2.76 ^{**}
학업성취	15.32(3.21)	14.59(3.48)	4.91 ^{***}
경제수준	3.32(1.93)	2.40(1.25)	14.67 ^{***}
부모의 애정과 이해	3.56(0.72)	3.29(0.72)	8.75 ^{***}
부모와의 대화	3.43(0.84)	3.22(0.82)	5.77 ^{***}
부모의 외출감독	3.45(0.81)	3.14(0.84)	8.85 ^{***}
부모간의 불화	1.70(0.77)	2.03(0.81)	-9.46 ^{***}
부모의 학대	1.53(0.72)	1.75(0.80)	-7.05 ^{***}

^{**} $p < .01$. ^{***} $p < .001$.

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계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전문계 학생들에 비해 3차년도 측정치인 1학년($t = 4.79$, $p < .001$), 4차년도 측정치인 2학년($t = 5.30$, $p < .001$), 5차년도 측정치인 3학년($t = 2.76$, $p < .01$)에서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 학교 계열별 독립변수 중 개인 요인에 따른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일반계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 점수는 15.32점으로 전문계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 점수 14.5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교 계열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4.91$, $p < .001$). 경제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계 학생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332만원, 전문계 학생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240만원으로 월 평균 소득이 92만원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계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가계경제 수준이 전

문계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4.67$, $p < .001$).

부모자녀 관계 요인으로 선정한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외출감독, 부모간의 불화, 부모의 학대에 따른 계열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애정과 이해정도에 대해 일반계 학생들은 평균 3.56점, 전문계 학생들은 평균 3.29점으로 응답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에 비해 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며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t = 8.75$, $p < .001$). 부모와의 대화를 얼마나 나누는지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의 점수는 일반계 3.43점, 전문계 3.22점으로 평균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나, 일반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에 비해 부모와 대화를 더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t = 5.77$, $p < .001$).

.001). 외출할 때 부모가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는지, 언제 귀가할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계가 3.45점, 전문계가 3.14점으로 일반계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외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85, p < .001$). 부부간의 불화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일반계 1.70점, 전문계 학생들이 2.03점으로 전문계 학생들이 부모님들 간의 다툼이나 불화를 더 많이 목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t = -9.46, p < .001$). 마지막으로 계열별로 부모가 욕설을 하거나, 체벌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반계 1.53, 전문계 1.75점으로 전문계 학생들이 부모의 체벌 및 학대를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7.05,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 점수, 부모요인 및 개인요인들의 계열별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치 결과는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집단이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임을 의미하므로, 성장모형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계열별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학교 계열 별 개인 및 부모자녀 관계 요인에 따른 진로성숙도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먼저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

표 5.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무조건부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β_{00}	초기치	25.74	0.09	257.58***
β_{10}	변화율	0.56	0.06	8.94***
무선효과		변량	SD	χ^2
τ_{00}	초기치	10.83	3.29	4301.01***
τ_{11}	변화율	1.88	1.37	2776.94***
공분산				
τ_{10}		12.76	3.57	

*** $p < .001$.

형을 세우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무조건부 모형의 무선효과를 살펴보면, 초기치의 경우 무조건부 모형에서 나온 분산은 10.83이고 변화율의 분산은 1.88이었으며 두 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와 같이 무조건부 모형 검증을 통하여 2수준에서의 독립변수 추가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초기치와 변화율이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개인 및 부모자녀 관계요인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평균 진로성숙도 초기치는 25.60점이었으며, 이 값의 평균 남녀 간 차이는 0.86점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진로성숙도는 0.86점 낮은 것을 의미한다($p < .001$).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이 평가한 자신의 학업성취 정도가 1점 증가할수록 평균 진로성숙도 초기치는 0.15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6.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 대한 조건부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상수	25.60	0.09	266.46***
성별	-0.86	0.20	-4.27***
학업성취	0.15	0.04	4.37***
경제수준	0.05	0.06	0.71
부모의 애정과 이해	0.53	0.22	2.45*
부모와의 대화	0.03	0.18	0.18
부모의 외출감독	0.44	0.15	3.01**
부모간의 불화	-0.42	0.16	-2.67**
부모의 학대	-0.18	0.18	-1.02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일반계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에 대한 조건부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상수	0.57	0.06	9.01***
성별	0.06	0.13	0.46
학업성취	-0.08	0.02	-3.60**
경제수준	-0.01	0.04	-0.32
부모의 애정과 이해	0.01	0.13	0.05
부모와의 대화	-0.12	0.11	-1.07
부모의 외출감독	0.00	0.10	0.01
부모간의 불화	-0.08	0.10	-0.76
부모의 학대	0.10	0.12	0.79

** $p < .01$. *** $p < .001$.

이어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평균 진로성숙도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부모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정과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초기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5$), 부모의 외출 감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즉,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알고 있을수록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부모간의 불화 정도에 해당하는 부모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광경을 많이 볼수록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율에 대한 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평균 진로성숙도 변화율은 0.5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 요인으로 는 학업성취 뿐이었다. 학업성취 정도가 1점

증가할수록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은 0.08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 중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없었다.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무조건부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무선효과의 초기치 분산, 변화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1$). 이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개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개인 및 부모요인 변수들을 투입하는 조건부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건부 모형의 결과는 표 9, 표 10과 같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평균 진로성숙도는 21.58점이고, 학업성취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는 0.16점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1점 높으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는

표 8. 전문계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의 무조건부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β_0	초기치	24.42	0.19	127.72***
β_{10}	변화율	0.74	0.12	6.35***
무선효과		변량	SD	χ^2
τ_{00}	초기치	12.08	3.48	1234.04***
τ_{11}	변화율	0.76	0.87	731.87*
공분산				
τ_{10}		16.05	4.01	

* $p < .05$. *** $p < .001$.

0.16점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 요인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성숙도에 부적인 효과(-0.68)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초기치는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전문계 고등학생은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진로성숙도 변화율은 평

표 9. 전문계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초기치의 조건부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상수	21.58	1.60	13.50***
성별	-0.58	0.32	-1.53
학업성취	0.16	0.06	2.75**
경제수준	0.21	0.17	1.22
부모의 애정과 이해	0.14	0.36	0.37
부모와의 대화	0.21	0.32	0.64
부모의 외출감독	0.07	0.28	0.23
부모간의 불화	0.08	0.31	0.28
부모의 학대	-0.68	0.30	-2.28*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전문계 고등학생 진로성숙도 변화율의 조건부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상수	1.01	0.85	1.19
성별	-0.15	0.24	-0.62
학업성취	-0.04	0.03	-1.34
경제수준	-0.03	0.10	-0.33
부모의 애정과 이해	-0.12	0.23	-0.52
부모와의 대화	0.06	0.22	0.27
부모의 외출감독	0.26	0.18	1.51
부모간의 불화	-0.28	0.22	-1.28
부모의 학대	0.28	0.18	1.52

균 1.01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일반계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던 학업성취도 전문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로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민감한 과목들의 성취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고등학생 개인 및 부모자녀 관계 요인으로 설명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계열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시기 동안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였으며,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실시한 선행연구 결과(이경옥, 2002; 차정은 등 2007; Hartung et al., 2005; Patton, Watson, & Creed, 200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의 의미와 고등학교 3학년이 갖는 시기의 특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진로란 한 개인의 생애 과정으로 개인은 일생동안 일련의 발달과업을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발달과업을 수행하려 한다(Super, 1990). 고등학교 시기는 미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현실기이며,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진로를 결정하며,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Ginzberg, Ginzberg, Axelrad, & Herma, 195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급등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상급학교나 구직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는 대학 입시나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때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로성숙도가 급등하는 경향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처한 상황인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가질 것인지, 그런 진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심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진로성숙도의 초기치는 일반계 학생들이 더 높았고,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은 전문계 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친 전 시기동안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고등학교에 입한 한 후 졸업시기까지 진로성숙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지만, 이들의 진로성숙도는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낮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진로성숙도의 학교 계열 간 차이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지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진로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대학생의 경우 주로 취업과 관련이 있고(김영경, 2008), 고등학생은 주로 진학과 관련이 된다(이은경, 이혜성, 2002).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다음단계인 청년기에 진로준비를 통해 직업생활로 연계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인 경우는 진로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라는 선택에 직면한다.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과학습의 차이로 나타나며, 진로탐색, 진로선택, 진로준비가 상이하며 직업만족 및 적응에도 차이가 나타난다(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 2010; 함승연, 2011).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낮다는 점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및 만족도에 있어서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많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성적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문계 고등학생에 특화된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개인요인과 부모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 계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초기치에는 개인요인 중 성별과 학업성취,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애정과 이해, 부모의 외출감독, 부모간의 불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변화율에는 학업성취만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초기치에는 개인요인 중 학업성취, 부모요인 중 부모의 학대가 유의했으며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었다.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달리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 계열에 상관없이 고등학생의 1학년 때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초기치가 높으므로, 자신이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계나 진로조망능력도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송병국, 전주연, 2013; 진성미, 2011; Basow & Howe, 1979; Hollander, 1972; MacKay & Miller, 1982)에서 학업성취와 진로성숙도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경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요인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 및 변화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지지와 애착의 질이 자녀의 진로발달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도연, 오옥선, 김성봉, 2012; 김수리, 2005; 한수민, 오인수, 2014)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주리(2009)의 연구와 유사하게 이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자녀 관계는 진로성숙도의 초기치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은 그들의 발달에 중요한 모델이 되는 주변인으로서 부모를 인식하며,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지각하는 질적 측면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대학생에 비해 부모의 영향이 크다(기영락, 임성택, 2010).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지에 따라서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거나 반대로 포기하기도 한다(엄영순, 최연실, 2009). 이와 같이 부모는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화 과정인 진로선택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학교 계열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가정의 지지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주며,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진로성숙도와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일반계 학생들에게는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 측면이, 전문계 학생들에게는 부모자녀관계의 부정적 측면이 진로에 대한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다. 역기능적 가족의사소통은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방해하고, 의견교환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Blustein, 1988)는 측면에서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관

계의 부정적 측면이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학교 계열에 따라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의 양상 자체도 다를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향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전문계 고등학생은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빠른 시기에 진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하지만 진로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부모자녀 관계의 부정적인 면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갖는 특징과 취약점을 토대로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 요인이외에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관련 변인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개인요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측면의 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주로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인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서로 다른 관련성을 보이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 각기 다른 연령 혹은 학년 간 진로성숙도 차이를 알아보는 횡단 연구방법과 달리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초기치를 설명하는 변인들을 밝혀냈지만,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율을 설명하는 변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진로상담 경험, 직업교육 등이 진로성숙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나(정운경, 2005) 이와 같은 변인들은 청소년 패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문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진로에 대한 활발한 탐색을 통해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고, 대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는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므로(이상희, 정지후, 2015),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혀진 요인들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종단적 접근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선형변화모형을 통해 진로성숙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변수의 변화가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을 달리하여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영락, 임성택 (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9(5), 71-91.
- 김동준 (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중단 관계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및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2005).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정원, 김옥인 (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 박창남, 김희진, 김선엽 (2001). 청소년 패널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병국, 전주연 (2013).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 235-264.
-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97-323.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엄영순, 최연실 (2009).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13(4), 197-224.
- 오정란 (1998).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8(1), 19-40.
- 오현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 (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옥 (2002). 여고생의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 탐색.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정지후 (2015).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단계, 정체감 스타일과 내러티브 정체감 비교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143-165.
- 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주리 (2008). 부모애착 및 학업성취가 초등

- 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제 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79-92.
- 이주리 (2009).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아동학회지*, 30(2), 43-55.
- 이현철, 김경식 (2012). 부모관계가 전문계 고등학생의 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 고등학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학논총*, 33(2), 69-84.
- 임 언, 정윤경 (2001).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성숙도검사 실시요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윤경 (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59-305.
- 진성미 (2011).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진로성숙도 관련변인별 집단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33-156.
- 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 한수민, 오인수 (2014). 고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1), 261-281.
- 함승연 (2011). 전문계고 학생의 전문교과이해도 및 학교시설인식도에 따른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직업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2), 238-254.
- 허정철 (2008).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181-210.
- 홍세희 (2015). 종단연구방법론 워크샵 자료집. S&M 리서치 그룹.
- 홍세희, 김지연 (2006). 비연속시간 사건사 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의 문제행동 발생시점에 대한 부모영향과 성별의 상호작용 검증. *교육심리연구*, 20, 137-154.
- 황매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Basow, S. A., & Howe, K. G. (1979). Model influences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 Blustein, D. L. (1988). A canonical analysis of career choice crystalization and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11-117.
- Creed, P., Prideaux, L. A., & Patton, W.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decisional states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397-412.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85-419.
- Hollander, J. L. (1972). The present status of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In J. M. Whiteley & A. Resnikoff (Eds.), *Perspectives on voc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MacKay, W. R., & Miller, C. A. (1982). Relation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ex variables to the complexity of worker functions in the occupational choi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0, 31-39.
- Patton, W., Watson, M. B., & Creed, P. A. (2004). Career maturity of Australian and South African high school students: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explanation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3(1), 33-41.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Thousand Oaks: Sage.
- Singer, J. D. (1998). Using SAS PROC MIXED to fit multilevel models, hierarchical models, and individual growth model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23(4), 323-355.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et al.,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 Bass.
- 1 차원고접수 : 2015.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5. 05.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3.

A Study on the Change of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Individual and Parent Related Factors in comparison with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through Hierarchical Linear Model

Kim, Yumi

Kwon, Yun-jeong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of individual and parent related factors in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through a hierarchical linear model. There were 2,883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third, fourth, fifth waves of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was analyzed with t-tests and hierarchical linear model using HL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creasing over the course of the three-year period in freshman year, was soaring in the high school senior season. This phenomenon seems to reflect the developmental tasks required of a high school senior. Second, though the initial value of the career maturit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as higher, the rate of change was higher in vocational students. This result suggests that career education is needed to improv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Third, regardless of school, the initial career maturity of students who think well studied was higher. The parent related factor continues to affect career development consistently. This study confirmed that considering the school type, individual factors, and parental factors in the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is significant.

Keywords: career maturity, school type, parent-related factor, individual factor, HLM